

한국시니어클럽협 감사에 김년두씨



전남과학대학 김년두(64·곡성시니어클럽 관장) 교수가 지난 14일 대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2011년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김 교수는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신문협회 공정경쟁위원회를 역임했으며 협회 초대 및 3, 4대 감사를 지냈다.

/체험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보건소장 미안마서 의료봉사



전남대 순석준 보건진료소장(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16일 미안마 이주난민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태국으로 떠난다. 손 소장은 23일까지 8일간 태국 국경 메수지역에 머물며 미안마 이주난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펼친다. 또 광주인권평화재단봉사단이 손 소장과 함께 동행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오병태씨



오병태 호남대 도시계획과 교수가 최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동건·김지석 병무홍보대사 위촉



병무청은 지난해 육군으로 입대해 국방홍보원 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이동건·김지석 일병을 제8대 병무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병무청은 15일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가수 출신 이동건 일병과 연기자 출신 김지석 일병은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 병역 의무 자진이행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무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장 구자곤 ▲경영지원부문 문창희 ▲사업지원부문 장 김한식 ▲주거복지부문 남성권 ▲임대공급운영부문 이재원 ▲임대자산관리부문 이남기 ▲토목사업부문 김정수 ▲건축사업부문 정재우 ▲시설사업부문 김희종 ▲복구원주거복지사업단장 양재우 ▲혁신도시사업단장 조성환 ▲혁신도시사업단장 김남강 ▲광주첨단사업단장 김정윤 ▲광주첨단사업단장 김현우 ▲토목건축사업부문 노형규 ▲토목건축사업부문 박효열 ▲엑스포사업단장 김형인 ▲엑스포사업부문 백동화 ▲토목무안사업단장 김성규 ▲영산강섬진강보상사업단장 김건일

# “달리고 공부하고 아직 할 일 많지요”

자전에세이 출간 70대 현역 이발사 이상수 씨

“나이 험신에도 도전할 게 많습니다. 평생의 한이었던 못 배움의 설움을 극복하고자 대학에도 다니고 있죠.”

고희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광주에 몇 안 되는 이발사 이상수(71)씨가 자신의 삶을 엮은 자전에세이 ‘이상수의 즐거운 날’(시와사람 퍼낸)을 출간했다.

15일 광주시 북구 임동 삼화온천 내 이발소에서 만난 이상수는 “블로그에 올렸던 내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엮은 것”이라며 “소소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역사로 기록하고 싶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어 책을 내게 됐다”고 수줍게 말했다.

광주 지원동 소태실에서 태어났다는 이상수의 삶은 그 자체로 흥망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1960년 초 약관의 나이에 이발 기술을 배워 천직으

로 알고 일했다. 1970년대에는 금남로 4가에 광주에서 제일 큰(여자 면도사 10명, 남자 이발사 6명 고용) 오성이발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발업이 ‘폐쇄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양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잘되던 이발관은 문을 닫아야했다.

그리고 1983년부터 목욕탕 내 이발관을 전전했다.

이씨는 이발사는 직업으로 열심히 살아온 덕에 2

남 1녀의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허전함으로 남는 것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恨).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이상수는 2007년 4월과 8월에 경정고시로 중·고등 학교과정을 마쳤고, 지난해에는 예순이 훌쩍 넘은 나

이에 용기를 내 대학에도 진학했다. 그는 현재 동강대 노인복지과에 재학중이다.

“삶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

나에 달렸죠. 결단하고 달려들면 못할 게 없지요.”

이씨의 이러한 정신은 운동에 대한 집념으로 이어졌다. 짚었을 적 결백을 않고, 나이 들어선 뇌종양 수술을 경험한 터라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달리기 운동. 미라톤은 이씨의 도전정신에 불을 지폈고 매년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그의 기록은 갈수록 좋아졌고, 비공식이긴 하나 하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으로는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뛰는 것이지만 나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제도 뛰어 보니까 아직 쟁쟁하드라고요.”

이씨는 올해 대회에도 꼭 참가해 노의장을 파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도 이씨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금을 공부해볼까 궁금증이다. 가야금을 잡시 배워본 적이 있지만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웠다는 것이다.

고희를 맞은 황훈의 이발사, 밤에는 학교에 강의를



들으며 가는 폐기 넘치는 대학생. 그를 이끈 것은 한이 있지만 그는 지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친다. 이씨의 집념과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前 한총련의장, 운남 복지관장 됐다

### 광산구 노인복지관 강위원 씨

한총련 의장을 지내며 9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강위원(40)씨가 최근 광주시 광산구 노인복지관장에 채용됐다.

강씨는 지난 1997년, 제5기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의장에 선출됐다가 감옥에서 4년여의 고초를 겪기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긴 수감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출소 후 그는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면서 지난 2008년 고향 영광에서 지인들과 복지공동체 ‘여민동락’을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꾸려나갔다. 이후 ‘여민동락’을 자립형 공동체로 키워내 주목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로당

순회 활성화 ▲이동 5일장 ▲일자리 사업단 ▲야학 ▲마을기업센터 등의 사업을 성공시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김씨는 “광산구 노인복지의 미래는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일체를 이루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린 자급자립형 공동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여가’와 ‘케어’(Care~돌봄)에 매몰돼 ‘시설 안에 갇힌 시설’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경제·문화·교육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도농복합도시가 참조 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 어 창조적이고 차별적인 지역복지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애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종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y@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는 오는 18일 열리는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순국한 고(故) 서정우 하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단국대는 투철한 국가관과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국위선양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졸업장을 수여를 결정했다. 오는 18일 오전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열리는 졸업식에는 고 서 하사 부친 서래일(53)씨가 참석, 명예졸업장을 받을 계획이다.

광주 출신인 고 서 하사는 2008년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학과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치고 2009년 초 해병대에 자원입대 했다가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순국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고 서 하사의 부모가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방문,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한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이 15일 아들의 묘 묘지(군장대)를 찾아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문 일병은 지난해 이 학교 신재생에너지 계열 학과에 입학해 1학년 뒤 그해 8월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변을 당했다. 문 일병의 아버지 영조(49)씨는 이날 광우이가 떠난 지 3개월 만에 군장대학을 방문해 이승우 총장과 이를 맡았던 이희승 교수에게 1000만원을 내놓았다.

영조씨는 “광우이가 다녔던 신재생에너지 계열 학생 중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영원히 잊히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은 가족을 위해 서서히 그 당시의 일들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학위수여식에서 아들을 대신해 명예졸업장을 받는 영조씨는 “앞으로도 조금씩 어려운 학생들을 돋고 싶다”고 말했다.

### 전남대 동창장학회 장학생 선발심의회



(재)전남대 동창장학회(이사장 최상준)는 지난 14일 금수장 아리랑하우스에서 2011년도 정기이사회 및 장학생 선발심의회를 개최했다.

<전남대 동창장학회 제공>

### 무주리조트서 ‘전국 소년원학생 스키캠프’



고령정보산업학교(광주 소년원)는 15일 무주리조트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김수남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학생 스키캠프 개회식’을 개최했다.

<고령정보교 제공>

### 광주여대-中 절강성 온주여대 교육 협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는 최근 중국 절강성의 온주여자대학교를 방문, 상호 교육과정과 학위 수여 과정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여대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수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족

▲이상태(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홍명옥씨 삼남 민(고려중교사)·윤진구(사업)·고영식씨 장녀 유현(전남대병원 원무과) 양=19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조선컨벤션웨딩 1층.

▲조옥자씨 자남 최정훈군 주재호·양영식씨·마내 선옥양=19일(토) 낮 12시 30분 호텔무등파크 4층(다이아몬드홀)

▲김희환(전 농성1동장)·윤한금씨 장남 정육군 주영식·이봉복씨 장녀 민경양=20일(일) 낮 12시 2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1층(다이아몬드홀)

▲이민진(민진산부인과 원장)·오명숙씨 장남 승현군 김영일(대양종합조경대표)·김근숙씨 장녀 진영양·신부족 피로연=18일(금) 오후 5시

호텔무등파크 4층(컨벤션홀)

▲정연진·김영희씨 장남 후석군 김성선(급호고속 사장)·백현심씨 차녀 수아양=25일(금)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

### 동창·동문회

▲제2동 1513동창 부부모임(회장 김용진)=17일(목) 오후 6시 도청 옆 흥국 흥탁식당. 062-281-1683.

▲동신고 17회(회장 정재근) 2월 정기모임=17일(목) 오후 7시 금호동 화석시대. 010-4604-2958.

▲광주진흥고 2기=17일(목) 오후 5시 월산동 로터리 복식당. 062-369-4573, 010-6780-0157(나성웅)

▲제2동 우안초교 50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동림동 맑은 한우. 062-513-

### 종친회

▲제2동 1513동창 부부모임(회장 김용진)=17일(목) 오후 6시 도청 옆 흥국 흥탁식당. 062-281-1683.

▲동신고 17회(회장 정재근) 2월 정기모임=17일(목) 오후 7시 금호동 화석시대. 010-4604-2958.

▲광주진흥고 2기=17일(목) 오후 5시 월산동 로터리 복식당. 062-369-4573, 010-6780-0157(나성웅)

▲제2동 우안초교 50회 동창회(회장 김영갑)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동림동 맑은 한우. 062-513-

### 모집

▲이화유치원=친환경고급자재 시공(판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